스포츠 근간 뒤흔드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비롯한 각종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스포츠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평균기온이 점차 올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따뜻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계절 스포츠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대니얼 스콧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조사팀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역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20개 도시 가운데 11개 도시가 2050년 이후로는 동계올림픽을 더 이상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명한 빙하학자인 영국 런던대학의 마틴 시거트 교수는 "1850년만 하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이었지만, 지금은 410PPM을 웃돌고 있다." 며 "지구 역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 이상이었던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350만년 전으로,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20m나 높았다." 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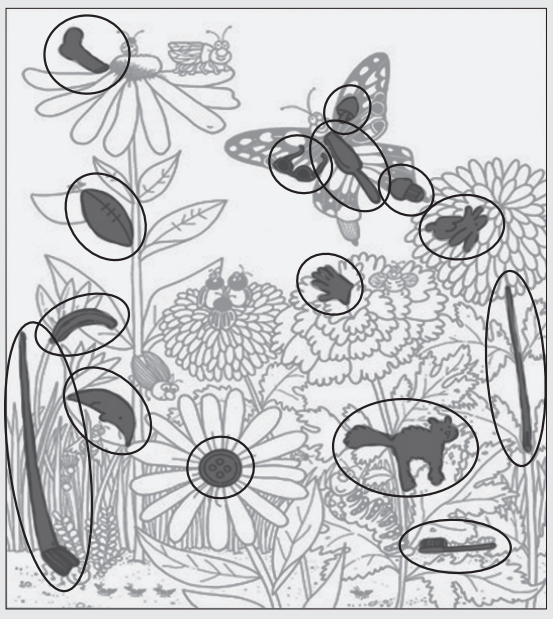
동계스포츠는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적당히 추워야 눈도 오고 얼음도 언다. 그런데 2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겨울도 짧아지고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들의 2월 평균기온은 0.4도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3.1도로 높아졌고, 21세기 들어서는 7.8도로 두 배 이상 점프했다. 이로 인해 동계스포츠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인공 눈 생산을 비롯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 정부는 이미 기후변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을 위해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장 찾기' 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많은 스키 선수들이 눈을 찾아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유명 스키 리조트들이 밀집해 있는 프랑스-알프스 지역 또한 2003년부터 2015년 사이 전체 빙하 중 25%가 녹아 없어져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평균기온 상승은 여름스포츠도 흔들고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가을로 향해가는 2, 3월까지도 때아닌 폭염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월 호주 오픈 때는 연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 대회 역사상 최초로 경기 중 휴식 시간인 '쿨링 브레이크' 가 도입되기까지 했다.

바다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여름에 즐기는 해양 스포츠는 예상치 못한 오염으로 인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열대성 폭풍의 강도와 발생 횟수가 증가하면서 육지의 쓰레기가 인근 연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요트, 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1에 있습니다.

손흥민·이강인, 한국 축구 르네상스 견일할까

한국 축구가 '슈퍼스타 효과' 에 활짝 웃고 있다. '캡틴'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과 '막내' 이강인(18·발렌시아CF)이 동시 합류한 국가대표팀은 역대 최상의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후 2022카타르월드컵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스쿼드를 꾸렸다.

22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최근 대표팀은 핵심 자원을 잃었다. 한 시절을 풍미한 기성용(30·뉴캐슬 유나이티드)과 구자철(30·아우크스부르크)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다행히 한국축구는 스타가 떠난 자리를 또 다른 스타로 메우게 됐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호출했다.

5월 폴란드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내년 도쿄올림픽(23세 이하)에 나설 수 있는 새싹을 월반시킨 배경은 세대교체다. 9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DNA를 장착시키는 작업은 필수다.

물론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를 주요 연령별 대회를 위해, 그것도 FIFA가 선수 차출을 강제할 수 없는 무대로 호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 대한축구협회는 묵직한 걱정거리를 떠안게 됐지만, 한국축구의 어제와 오늘을 책임지던 손흥민, 내일을 짊어질 이강인의 동반 합류는 굉장히 반갑다.

둘이 몸담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유럽 빅 리그로 손꼽히고 팀 내 경쟁도 치열하다. 그 속에서 손흥민은 각종 상을 휩쓸고 숱한 러브 콜을 받을 정도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이강인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폭풍 성장해 1군 선수단에서도 점차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강인은 손흥민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손흥민은 18세인 2010년 12월 A매치에 데뷔했는데, 이강인도 같은 시기에 꿈을 키운다.

지난해 하반기 부임한 벤투 감독은 잠시 구름 위를 걸었지만 아시안컵에서 아쉬운 성과로 주가가 추락했다. 4강 실패라는 결과도 아팠지만 뚜렷한 컬러를 확인시키지 못한 내용은 더 안타까웠다. 그 결과 연일 A매치 만원 관중을 동원하던 '축구의 봄' 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과연 손흥민과 이강인이 한국축구의 르네상스를 견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